

포천사회 知識人 ⑤4

대진대학교 구 득 환 교수

우리나라는 政治에 종속된 行政이 특징

대진大 공간과 각종 프로그램 포천市民 적극 활용해야

“대진대학교 교수들이 포천사회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는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구득환(61·사진) 교수는 현재 대진대학교 대학원장으로 석사과정 37, 박사과정 13전공을 관리하고 있다.

구 교수는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선리에서 태어나 서천초등학교, 서천중학교, 서천고등학교를 거쳐 공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1966년부터 1970년까지 공주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에서 근무했다. 서울 매원초등학교에서 5년 근무 후 대한교원연합회에서 발행하던 한국교육신문 기자로 3년간 근무하면서 서울시교육청과 문교부(현 교육부)에 출입하기도 했다.

구 교수는 울산그룹에서 설립한 학교법인 울산학원 사무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설립 업무를 담당했으나 울산그룹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그만두고 서울대학 관선이사 과경당시 교무주임으로 발령받아 1년 근무했으나 관선이사 철수에 따라 자동해임되어 그만두고 미술교사 자격증이 있어 선화고 미술교사로 2개월 근무 후 경신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겨 사회과목 교사로서 1994년도까지 12년을 근무하면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건국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구 교수는 1995년 대진대학교 행정학과가 설치되면서 부임했다.

강력한 대통령중심제에서 행정학은 늘 정치에 따라 그 변화가 심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히는 구 교수는 정치에 종속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포천시의 경우도 중앙정부의 재정을 지원받지 않으면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인사행정론, 국가공무원제도 등을 강의하고 있는 구 교수는 박사학위논문은 우리나라 50년동안의 중고등학교 정치교과서를 분석하여 발표했다고 한다.

대진대학교 대학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구 교수는 석사·박사과정을 통해 순수한 학자와 전문가를 양성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인 대학원이 과거처럼 순수한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고급인력이 취업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 있는 40~50대가 주로 석·박사학위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사학위를 받고 시간강사를 하



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다. 고급인력이 일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전공과 관련해 포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구 교수는 포천시 행정을 움직일 수 있는 조직, 인적구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및 적절한 공무원 숫자 등을 자문할 수 있다. 인력과 조직을 제대로 진단해서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으며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실시하고 싶다. 행정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인력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특별채용을 늘려 실질적인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중앙집권적인 제도와 틀에 맞추어 가다보면 행정 따로 현실 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포천시민들이 당부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 구 교수는 대진대학교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한다. 건물은 물론 대학교수 등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것을 권한다.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에 전문가가 있는 대학이다. 이 대학을 시민들이 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대학원에서는 대체의 학과정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늘 어떤 상황이든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력을 하면 이루어진다”를 평소 좌우명으로 삼아 생활해온 구 교수는 내가 먼저 잘 해야 주변도 좋아진다고 소박하게 다른 사

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교수는 학생들에게 전공과목 외에도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누구에게나 고통과 시련은 다가오게 마련이다. 그러나 고통과 시련은 영원하지 않다.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이겨내다보면 어느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어려운 고비를 만날때마다 잠시 쉬고 가자는 생각으로 지나온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이겨나갈 것을 권하고 있다.

취미활동으로 미술을 하고 있는 구 교수는 국전에서 입선, 특선 등의 경력도 있다. 또 여행을 즐긴다. 매주 금요일이면 배낭을 메고 떠난다. 우리나라 웬만한 곳은 가보지 않은 곳이 없다.

경기도문화관광분과위원, 경기북부지역발전위원회, 교육부 교육과정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구 교수는 현재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진대학교 대학원장으로 활동중이다.

오는 8월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동안 대진대학교에서 한중일 문화사상 학술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는 구 교수는 앞으로 연구계획은 한중일 공무원들의 승진제도를 비교연구해 보고 싶다고 한다.

포천신문에 꼭 보도하기를 바라는 내용에 대해 구 교수는 지역사회 각분야를 특색있게 심층보도하는 언론매체로서 지역사회소식을 잘 접하고 있다며 연재물에 있어 포천에서 가장 오래된 것과 외국인 근로자가 본 한국 등에 대해 연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한다.

다음은 구 교수의 주요 저서 및 논문이다. ▶행정학(성균문화, 1996)▶사회와 교육론(교문기획, 1994)▶한국 인사행정 연구(이화문화출판사, 1998)▶한국 행정체 연구(이화문화출판사, 1999)▶한국정부조직과 정원 관리(글기획,2001)▶한국 공무원임용 및 교육훈련제도(글기획, 2003)▶한국 공무원 제도의 변천Ⅱ(서예문인화, 2004)▶한국 정치행정문화 연구(대진문화사, 2005)▶관료제와 부패(이화문화출판사, 2006)▶한국 정치행정체제의 변동과 정치교육▶한국 정치교육 내용의 변천에 관한 연구▶한국 정치체제의 변동과 사회와 교육목표▶한국 정치행정체제의 변동과 중앙행정기구▶공무원 정원관리정책의 변천 외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취재파일

주민자치센터 개선방안

주민자치센터 '7년째 제자리 걸음'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사회 등 커뮤니티 구축해야



하승완 본지 취재국장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에 지급되어 온 도비가 전액 없어지고 순수 시비 지원만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문제점이 따르고 있다.

포천지역에 주민자치센터가 도입된 것은 2000년 화현면 자치센터가 처음이다. 이후 포천동과 일동면, 영북면, 관인면, 선단동, 영중면에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졌다.

주민자치센터가 도입된지 7년이 흘렀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식이나 자치위원들의 의식은 크게 변한 게 없다.

본래 주민자치센터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정부정책에 의한 것이다. 정부가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전환하면서 읍면동 업무를 시군구 업무로 이관시켰다. 읍면동 기능전환이란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나 건축 등의 전문적인 업무는 시군구로 이관하고 그 대신 주민의 행정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민원과 복지 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이관에 따라 여유가 생긴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있다. 더불어 주민자치센터는 단순히 주민여가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돕기와 서머서머한 이웃간 대화나누기 등 각박해져 가는 도심문화와 여유와 나눔의 장소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본래 의도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여유공간 활용에 있다. 그런데 여유공간을 활용하기 보다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읍면동사무소 공간을 협소할 경우 지역단위농협 강당이나 학교, 마을회관 혹은 경로당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원되는 예산의 문제다.

처음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고 운영되는 시기에는 시설비와 운영비로 국비 등이 지원됐다. 그리고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도비와 시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3단계라고 할 수 있는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전면 중단되고 순수한 시비 지원만 가능해진다.

현재 포천시가 7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연간 예산은 1억9천여만원이다. 이에 비해 의정부시는 26억6천만원, 양주시 8억원, 연천군 1억3천만원의 시비 혹은 군비를 지원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포천시 예산은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부족한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때까지 시비의 예산액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시에서 권장하는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별로 자체특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

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익금을 강사료와 각종 사업비에 활용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 농촌형과 도시형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농촌형태를 띠고 있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노령화 사회다.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당연히 사람이 없게 마련이다.

이에 반해 도시형 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많다. 일상 생활에 바쁜 도시의 주부와 직장생활하는 사람을 위한 밤 시간대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포천문화원과 여성회관 혹은 단위농협이나 각종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흡수하거나 통합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운영주체상의 문제이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 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이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된 이후 자치위원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없다보니 무엇을 해야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운영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천시 차원의 정기적인 교육이나 각종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위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가운데는 시설 학원이나 스포츠 센터 등과 겹치는 경우가 많다. 사양길에 접어들어 학원이나 스포츠 센터에서 운영하는 않는 프로그램은 일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치센터에서 개설해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감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재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포천지역 7개 주민자치센터가 공통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감사를 파견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인재풀 제도 또한 포천시가 주관이 되어 공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본래 취재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 폭을 확대하고 조례와 규칙, 운영세칙 등 관련 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포천시의 강제성이 일부 가미되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과 운영실적 평가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주민자치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포천시와 지역사회, 각종 단체 등과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한다.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지역농협과 학교, 경로당과 협력해야 한다. 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시설 학원이나 스포츠 센터와 상호공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포천시가 특성화 사업과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즉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 포천시가 상호협력하는 커뮤니티 파트너십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韓·中·日 공무원들의 승진제도 비교 연구해 보고 싶다”

고객님의 건강까지 생각한 다양하고 정갈한 상차림



예약문의 031) 543-8215

다양한 메뉴

가족·직장회식

넓은 주차공간 보유

청정식당 차림표

- 참계탕 소 20,000원
중 30,000원
대 40,000원
- 붕어찜 소 15,000원
중 20,000원
대 25,000원
- 갈치조림 소 15,000원
중 20,000원
대 25,000원
- 해물탕 소 15,000원
중 20,000원
대 25,000원
- 잡고기매운탕 소 10,000원
중 15,000원
대 20,000원
- 고등어조림 (1인기준) 5,000원
- 삼치조림 (1인기준) 4,000원
- 삼겹살 (1인기준) 7,000원

청정식당 약도

